

'전주형 뉴딜로 경제 대전환 선도'

시, 상생정책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혁신적 디지털 뉴딜과 수소·탄소·드론·금융 4대 신성장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끌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팔복창년예술놀이터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시는 23일 신성장경제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극복, 전주형 뉴딜로 경제 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산업·경제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전주형 상생정책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총력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전주형 디지털 뉴딜 추진 ▲주력산업 고도화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등이다.

먼저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형 상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오는 3월 31일까지 벌인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카드수수료와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 특성과 시장 육성 사업과 동네슈퍼 공동세일전도 펼치

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와 지역방역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760여 개를 제공하고 청년과 신중년을 대상으로는 30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탄소 산업 분야 전주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주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공을 들인다. 디지털 뉴딜에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68개 사업에 9,008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밸리'를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구축해 관광, 상수도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헬렌지 공모사업 ▲시민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한다.

시는 또 미래먹거리인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4대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 수소의 경우 수소전기차를 246대를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삼천동에 추가로 조성하는 등 수소 인프라 강화를 나선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지정돼 탄소산업 도시 전주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총 1,770억원을 투입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탄소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탄소복합재의 상용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산업 혁신지원센터에는 첨단드론공용장비를 구축해 지역 드론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금융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금융생태계 조성에도 탄력을 가하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팔복창년 예술놀이터 건립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전주 탄소산업 도시 조성 ▲노후산업단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를 개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래세대 창의·창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퓨처랩'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창년상상놀이터 등의 운영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 확산과 신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상생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해이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인,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전주시, 시 중소기업인연합회·연합회 내 6개 협의회 대표와 동참 협약식 가져

전주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한다.

전주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대표 임동욱)와 연합회 내 6개 협의체가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 & 지역 선순환 경제 캠페인 동참 협약식'을 가졌다. 6개 협의체는 ▲전주공단협회(대표 운영권) ▲전주시여성기업인협의회(대표 한춘자) ▲전주직식산업센터 관리단 협의회(대표 김승태) ▲전주시 이전 및 투자기업 연합협의회(대표 이윤영)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대표 전영천)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협의회 대표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전 직원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기로 뜻을



전주시는 23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대표 임동욱)와 연합회 내 6개 협의체가 함께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 & 지역 선순환 경제 캠페인 동참 협약식'을 가졌다.

모였다. 또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제품 사주기 등 지역제품 구매 촉진활동을 펼쳐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300여 회원사로 구성된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를 비롯해 6개 협의체의 168개 회원사가 착한

선결제 운동에 동참할 경우 지역경제에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농기센터,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 과정 교육생 모집

전주시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법을 전수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다음 달 8일까지 제17기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 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이번 친환경농업 과정은 환경보존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친환경농업의 이해와 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광심 살리기 등 친환경 토양관리 ▲친환경 병충해 관리 ▲미생물을 활용한 농자재 만들기 등 친환경농법과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다음 달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100시간의 이론·실습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 발표회도 가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가 틈새 없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제공자 중심으로 분절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특징으로,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한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비전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되는 편리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양질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확충 및 통합사례관리 강화 ▲살아 움직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세부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편리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35개동에 설치된 '원스톱 통합돌봄 창구'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돌봄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복지서비스 중합돌봄쿠폰 도입 등 양질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통합돌봄 사례관리를 전면 재배치해 민·관 협업을 위한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는 통합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35개 동의 '동 통합돌봄회의'를 강화·운영하기로 했다. 동 통합돌봄회의에 지역 내 복지기관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고,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조정해 중복 지원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돼지카드 캐시백 기부로 '얼굴 없는 천사' 된다

전주시-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돼지카드 기부문화 장려운동 위한 업무협약

전주시사람상품권(돼지카드)을 사용해 받은 캐시백을 기부하거나 판매액의 1%를 기부하는 기부천사 가맹점이 되면 소위된 이웃을 돕는 '얼굴 없는 천사'가 될 수 있다.

전주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돼지카드 기부문화 장려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돼지카드 매출액의 일부(1% 정도)를 기부하는 기부천사 가맹점의 기부금과 시민들의 캐시백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돼지카드 기부천사 가맹점 모집과 캐시백 기부금 모금 등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면서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돼지카드 가맹점으로는 총 89곳이 접수했으며, 오는 4월부터 기부가 시작된다. 돼지카드 가맹점에는 현판이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한 홍보 혜택도 주어진다. 시민들의 캐시백 기부액은 22일 기준 130명이 참여해 295만원에 달하는 것



전주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23일 전주시장실에서 '돼지카드 기부문화 장려운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으로 집계됐다. 김동수 회장은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기부금을 전주시 사회복지관 연수사업 등 공동목적사업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은 늘어난 반면 기부 참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천사 가맹점을 등록해주시는 점주분들과 캐시백 기부금을 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돼지카드는 나눔 기부천사의 전통을 잇는 '나눔카드'인 만큼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